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도내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보육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보육현장의 어려움 및 요구, 교사 효능감, 교사가 인지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내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및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위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논의 한 뒤 경기도내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및 교사 지원을 위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논의

본 연구의 내용 및 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에 대한 인식은 위험군 영유아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은 생물학적 위험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소현(2003)이 제시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둘러싼 위험이 환경적 위험, 이미 형성된 위험, 생물학적 위험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과 같이 현장의 교사들은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위험요인을 생물학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음 알 수 있다.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분별하는 참고사항으로 눈 맞춤이 안 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어발달지연을 참고하였다. 이는 교사-영유아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기초가 눈 맞춤과 언어표현이기 때문에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의 어려움 보고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영유아의 의중을 알 수 없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조기발견 방법에 대한 인식은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사의 관찰을 통해서’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장과 교사모두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조기발견에 있어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경우 자녀가 비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외면하려하지만 교사들은 부모 다음으로 영유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유아와 비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유아를 관찰하여 장애의 위험이 있거나 애매모호한 상황인 영유아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의 직접 관찰은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발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이상희, 이영우, 2016), 보육현장에서 또래와 다른 행동특성을 지닌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교사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중재방법 인식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 중재의 적기에 대한 인식은 24개월부터가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 내에서 조기개입이 이루어질 때 발달장애 경계

선상의 영유아의 증상완화 및 정상회복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개선된다
가 67.5%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지효 외(2018)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식 분석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보육현장 실태는 응답자의 60.8%가 발달장
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보육경험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
유아를 보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별적인 교육실행의 어려움이 가장 컸으
며 다음으로 부모와의 협력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
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인력부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가 부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반교사가 장애영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기관이 많다는 연구결과(소정은, 조윤경, 2014)와 유사
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유은경, 2018)과 같은 맥락을 보
였다.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일반 영유아 및 교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영향 인식이 8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영향의 수준
은 원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 담임교사가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 경계
선상의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와 대상 영유아를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 협조의 대
상으로 원장이 가장 많았다. 이는 원장의 전문성과 교사지도 능력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원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
장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소정은, 조
윤경, 2014; 유창숙, 조윤경, 2012)

셋째,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관련 보육현장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지도를 위한 요구는 보조교사 인력지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가로부터의
실제적인 지도전략기술 진수가 높았다.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에 대한 정보
는 유아의 진단 및 평가에 대한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
센터가 제공하는 영유아 지원을 위한 요구는 전담교사파견과 특수교육전문가 파
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담임교사를 위한 지원 요구는 보조교사 파견과 전문
가와와의 개인상담 및 코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내용에 대한 요구로는 대상 영유아 부모님과 전문가의 상
담을 통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이지효 외(2018)의 연구에

서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지원필요 영역으로 선별 및 진단 다음으로 부모 상담이 높게 나온 결과와 같다.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도에 대한 현직 교사교육에 대한 요구는 필요하다가 91.6%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창숙, 조운경(2012)의 연구결과 장애아전담교사 및 원장의 교사교육 요구도 결과와 같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들은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행동에 대한 대처 및 실제적인 지도방법을 습득하기위한 교사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참여의지도 높으나 보육현장의 여건상 시간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참여가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었다.

넷째,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도에 대한 교사 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임 교사의 교사 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특수교사가 교사 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위에 따른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도에 대한 교사 효능감이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가 개별적인 교육실행의 어려움이었고 영유아지도를 위한 요구로 보조교사 인력지원과 전문가로부터의 실제적인 지도전략기술 전수로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일반적 교실에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중 한 명이라도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가 있게 되면 교사는 영유아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당 영유아의 행동 문제나 특수 상황에 대한 지도 전략기술의 부재로 효능감 저하를 보고하고 있다.(박경, 2013). 교사 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내적요인과 유아의 내·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영유아 행동 문제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박정하, 2018). 따라서 일반 담임교사의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도에 대한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교사 역량은 단기간 안에 향상될 수 없기에 교사 역량에 따른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등으로 지속적인 교사교육을 제공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교육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교수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동기부여 등 교사 효능감 고취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박정하, 2017)을 제공하여 교사가 지도하는 영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가 인지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실태는 교사 응답자중

58.0%가 담당 학급에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가 있으며 원장 51.4%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가 1명 이상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이지효 외(2018)의 연구에서 장애위험 영유아의 재원여부가 응답자의 55%가 있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보육현장에서 과반수의 교사가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가 인지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는 남아가 78.8%로 월등히 많았다. 교사가 인지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는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많았으며, 개월별 인원수는 37개월~48개월이 29.8% , 31개월~36개월 20%, 25개월~30개월 13% 순으로 나타났고, 1년 단위로 구분했을 경우 25개월~36개월이 33% 로 가장 많았다. 이것으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의 특성이 24개월 이후부터 교사로부터 많이 인지됨을 유추할 수 있다.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가 보이는 특성 및 증상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 범주에서는 혼자 단순놀이와 장난감이나 물건교환 거의 없음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조절 범주는 기분변화가 심한 특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언어발달 범주에서는 영유아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지시에 따르기 어려운 언어표현 및 이해력 지연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행동특성 범주에서는 일반적 융통성 저조와 과잉행동, 눈과 손의 협응 약함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은경(2018)의 연구에서 장애-위험 유아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교사가 인지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는 교사 개인의 성향별 인식에 따라 정상 영유아 범주로 볼 수도 있으며, 경계선상의 영유아로 볼 수도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유아발달 기준의 내용을 교사가 바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영유아를 관찰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앞서 살펴본 경기도내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보육실태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원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지속 및 확장을 위한 제언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조기 발견과 개입은 해당 영유아의 발달을 돕는 중요한 요건으로 발견과 개입의 시기를 놓치면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송영희, 조윤경(2016)은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원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육현실은 교사의 관찰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발견하고 부모에게 보고하는 경우 부모는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해당 영유아 지도에 있어 조기개입 및 가정과의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조사자료 분석결과 보육현장의 교사 60.8%가 경계선상의 영유아 보육경험이 있고, 교사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에서 1명 이상의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어린이집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가 많을 것으로 여겨지며, 교사의 어려움도 예견된다. 교사는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지도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개별적 교육실행의 어려움과 부모와의 협력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은 부모-어린이집-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삼각구도의 협력모델로 가정과 어린이집의 연계를 강화하여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와 교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대상을 장애 영유아 뿐 아니라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로 확장하면서 해당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고 교사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을 계획 후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거쳐 신청어린이집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을 지원하기 전에 부

모-어린이집-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삼각구도의 위치에서 해당 영유아를 위해 각각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지을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전담교사가 없는 어린이집에서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을 신청 할 때 부모와 담임교사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차원에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돕기 위하여 순회지원 신청은 하였으나 담임교사는 자신의 교실을 오픈하는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의뢰 전 중재 실행이 어렵다. 때문에 부모와 담임교사, 어린이집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지로 순회지원을 시작하기 전 ‘순회지원 협약서(가칭)’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교사, 부모, 어린이집과 전문가는 대상 영유아의 정보교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유아지원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잘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선정된 어린이집은 특수보육전문가가 해당 기관에 5~10회기 방문하여 영유아,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 대상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개별화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사에게는 코칭, 모델링, 과제 제시 및 상담을 제공한다. 부모에게는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현재 발달상황의 이해를 돕고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돕는다. 이렇게 하여 발달장애 경계선 영유아의 정상발달로의 회복을 지원한다.

셋째, 특수보육전문가 개인별 성향과 지식수준의 차이에 따라 지원의 질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특수보육전문가들의 지원방법이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으로 지원아동의 진행 사항 공유와 정보교환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은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가 정상발달로 회복되거나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과정까지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정에 탈락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보육교직원의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상 영유아의 원인, 특성, 지도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부모 상담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다

2)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연계 지원방안 제언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역의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과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교육, 상담 등 가정 양육 지원, 지역의 전문인력·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러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의 주요 사업과 연계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및 교사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가. 교육 및 심리지원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조사자료 분석결과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조기 발견 방법에 대한 인식 중 전문의 상담을 통한 발견 다음으로 교사의 관찰을 통한 발견이 높게 나타났고,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 협조의 대상으로 원장과 상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으로 원장의 전문성·교사지도 능력 및 역할의 중요성과 교사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교사와 원장을 위한 교육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다행이도 교사와 원장은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도를 위한 교육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에 대한 정보 요구로 영유아의 진단과 평가에 대한 정보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가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 기준의 내용을 바르게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발달지체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발견할 시 같은 영유아를 관찰하더라도 교사 개인의 지식수준의 차이와 교사 개인의 성향별 인식에 따라 정상 영유아 범주로 볼 수도 경계선상의 영유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영희, 조윤경(2016)의 연구에서도 영아기 발달 및 발달지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부모상담이 미숙하여 보육교사가 어려움을 경험하기에 영유아 발달, 진단 및 평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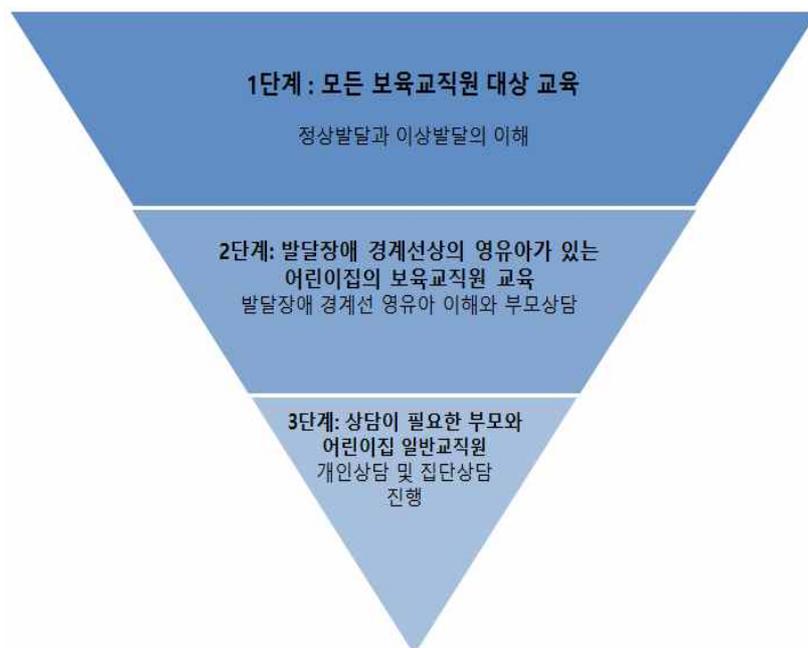
이에 보육교직원 대상교육을 실시하되 1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

계적 단계화로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단계별 교육지원을 제안한다. 1단계 교육지원은 일반보육교직원 대상 ‘정상발달과 이상발달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하는 것이다. 24개월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발달의 징후와 영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특징과 원인을 알 수 있도록 돕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발달검사도구로 개발된 영유아검진 K-ASQ문진표(생후 4개월~60개월) 활용방법을 교육하여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발달체크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유아의 발달속도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 발달 선별도구의 사용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2단계 교육지원은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이해와 부모상담’을 주제로 교육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발달장애 경계선상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 및 증상으로 ‘혼자 단순한 놀이’, ‘장난감이나 물건 교환이 거의 없는 역할놀이의 어려움’, ‘눈 맞춤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 특성 및 증상에서는 ‘기분변화 심함’, 언어발달 특성 및 증상에서는 ‘언어표현 및 이해력의 지연’, 행동 특성 및 증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융통성 저조(고집이 지나치게 썸)’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ASD(자폐스펙트럼장애)와 유사자폐의 주된 특성 및 증상임을 볼 때, 발달장애 경계선상 영유아의 이해와 부모상담 방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유아기 장애의 후천적 위험요인으로 미디어 과다노출, 초독서증, 반응성 애착장애 등의 원인과 특성, 대상 영유아의 지도방법과 부모상담 방법을 교육하여 정상 발달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을 가진 영유아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교육지원은 상담이 필요한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발달장애 경계선상 영유아의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의 변화가 가장 높게 인식되었고,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가 지원에 대한 내용 요구로 전문가와 대상 영유아의 부모 상담을 통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교육의 필요 이유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이 교사로서 자존감을 향상하고 일반 영유아들과 통합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심리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영유아 지도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사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닌 부모를 대상으로 긍정적 탐색을 활용한 교사교육(박정하,

2017) 및 부모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내적작동모델(김진숙, 2013)의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심의진 외(2004)의 연구는 영상물 과다 노출 유아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관련 특성으로 불안과 우울, 미숙한 양육기술, 부부불화, 시댁 간 갈등,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 소유를 보고 하면서 부모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내적작동모델에 의한 부모·자녀관계 어려움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이상발달을 처음 확인하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감이 일반 부모들보다 훨씬 더 크게 표현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들을 안정되게 수용해 줌과 함께 ‘내 탓’이라는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지금 현재 아이의 발달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해온 양육태도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 가장 잘 했던 양육방법 및 태도를 칭찬해 주고 격려해줌으로 양육에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은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자녀를 둔 부모가 향후 영유아 중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교육지원 3단계모형은 다음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지원 3단계 모형

<그림 IV-2>와 같은 단계적 교사교육 및 심리지원을 제안하면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본 조사 분석결과 교사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의지는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부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교사교육 참여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난 만큼 교사교육 기회 뿐 아니라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 홍보 및 정보제공

본 연구의 조사자료 분석결과 교사와 원장 응답자중 과반수이상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급 또는 어린이집에 한 명 이상의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든 우려와 같이 많은 수의 영유아가 발달장애 경계선에 있음을 유추하는 근거가 되었다. 만일 해당 영유아들이 그들에게 맞는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다양한 영역의 발달과 부적응, 학습에 결함을 보일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고, 유아기 뿐 아니라 이후 발달 및 성인기까지 심리적 부적응 및 반사회적 행동문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Harris, Fox & Holtz, 2016)에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조기 발견과 의뢰 전 중재가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애 선별 이전에 대중의 인식을 도모하여 장애 선별과정을 촉진하는 사정 단계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조기 발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디어 과다노출, 초독서증, 반응성 애착장애 등 후천적 위험요인으로 발달장애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유사자폐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중을 위한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 발생 예방 인식고취로 영유아가 후천적 위험요인이 제거되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부모대상 홍보 및 정보제공으로 자녀의 발달을 돕고 자녀와 관계 맺음을 지원하는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아진단 및 평가에 대한 정보와 조기발견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한다. 교사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와 보건복지부(2013)에서 발간한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와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용 안내서’를 보육현장과 가정양육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성화된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자료를 탑재하여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도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으로 인터넷사이트 활용이 가장 높았던 이유에서도 그렇다.

다. 인력풀 및 지역사회연계

본 연구의 조사자료 분석결과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관련 보육현장의 요구는 보조교사 인력지원, 전문가로부터 실제적인 지도전략 기술전수,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전담하는 교사과건, 특수보육전문가 과건, 전문가의 해당영유아 개인지도의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수보육전문가, 보조교사, 장애아전담교사 확보를 위한 인력풀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 및 특수보육전문가의 수급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준 높은 특수보육전문가 소수를 중심으로 특수보육 보조교사(가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보조교사 교육을 수료한 자) 5명 이내를 한 팀으로 묶어 ‘특수보육 전문가와 보조교사의 팀 매칭’을 형성하면 보육현장의 인력지원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보육 보조교사는 팀 매칭 된 특수보육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 영유아를 지원할 전문지식과 역량을 쌓고 지원 선정된 어린이집에 매주 1회씩 방문하면 특수보육 보조교사는 1주에 5개 어린이집 지원이 가능해 진다. 5명의 특수보육전문가를 중심으로 25명의 특수보육 보조교사가 5개의 팀을 이뤄 125의 기관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특수보육 보조교사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 영유아를 관찰, 보육하여 직·간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특수보육전문가의 단기간 코칭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육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운영상 예산의 소요와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가 장애로 발전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내 발달센터와 MOU(업무협력체계)를 맺어 어린이집 내 대상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내 발달센터의 업무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현장의 요구와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발달장애 경계선상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기발견, 의뢰 전 중재, 조기치료의 단계가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과 어린이집을 연계해 지원하는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이 향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행복한 영유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어린이집, 행복한 사회가 되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조례제정과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특수보육전문가 및 특수보육 보조 인력의 양성 방안의 구상도 필요함을 제언한다.